

| 2014년 주님의교회 표어 |

주여, 나를 (롬 5:10)
평화의로 구로 써 주소서

함글함글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_ 롬 12:15

| 오늘의 말씀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 (상)

2014년 8월 3일 주일 제 337호 | 발행인: 박원호 | 편집인: 김학원 | 발행처: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 02-416-5181~2) | 편집: 함글함글팀 |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www.pcltv.org



전교인 함께 나눈 ‘하나님 나라와 평화’

2014 주님의교회 전교구수련회, 원주 명성수련원에서 열려

3년 만의 전교인 수련회

2014년 주님의교회 전교구 수련회가 교구에 따라 1차(1교구~5교구, 7월 4~5일)와 2차(6교구~10교구, 7월 11~12일)로 나뉘어, 원주시 치악산 명성수련원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교구 수련회에는 1차에 350여 명, 2차에 440여 명 등 모두 790여 명이 참여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수련회는 2011년, 충주에서 열렸던 전교인 수련회 이후, 전교인이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기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3년 만에 개최된

뜻 깊은 행사였다.

문화공연, 특강, 평화의 십자가

1차 수련회는 7월 4일, 2차 수련회는 7월 11일 오후 2시 교회에서 출발하여 오후 3시 30분 경에 수련원에 도착했다. 교인들은 배정된 방에 짐을 풀고 갈릴리동 예배실에 모여 “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수련회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이어 문화공연의 시간이 있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성령 하나님” 주제의 류영모 목사(1차, 한소망교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제의 이만규 목사(2차, 신

양교회)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어 “평화의 십자가를 세상으로” 주제로 교구별 다양한 공연과 찬양, 간증을 함께 나누었다.

자연과 함께 한 단합과 친교의 시간

토요일 일정은 새벽 6시 교구별 아침묵상의 시간으로 시작했다. 주님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 이어 가파른 뒷산에 삼삼오오 올라 청정 공기를 마 음껏 마시며 하루를 힘차게 열었다. 아침식사 후에는 이단, 통일, 환경 중에서 주제를 선택,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구원과 사건

으로 인하여 이단 강의에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보였다.

강의가 끝난 후 잔디운동장에서는 교구대항 체육대회와 뜨거운 시루떡을 떼는 성찬의 시간이 이어졌다. 풍선기둥 세우기, 풍선 터뜨리기, 혈령 바지에 풍선 많이 넣기, 2인3각 계주 등을 통해 멋진 단합과 친교의 시간이 되었다. 닫는 예배에서 박원호 담임목사는 서울에서 급송하여 아직도 파끈파끈한 시루떡을 떼어 축하하고, 둥글게 자리한 교우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었다. > 화보 2면

함글함글

2014 전교구 수련회

친교와 쉼의 시간, 성령공동체의 작은 재현



수련원에 도착해서 명찰을 받고 방을 배정



전교구 수련회의 첫 일정, 여는 예배



십자가와 예수님을 형상화한 문화공연



교구별 다양한 공연과 찬양 (1)



교구별 다양한 공연과 찬양 (2)



목회자들의 열정적인 몸 댄스



첫날 저녁, 류영모 목사의 전체특강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62

贖愆祭 (속건제 guilt offering)

누구든지 여호와와 聖物(성물)에 대하여 不知中(부지중)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銀(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레위기 5:15)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 1. 제사 성격:** 여호와와 聖物(성물) 또는 禁令(금령)을 어겼거나 不知中(부지중)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犯過(범과)를 赦(사)함 받기 위해 賠償(배상)형식으로 드리는 義務祭祀(의무제사)이다.
- 2. 희생 제물:** 흠 없는 숫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손해액의 1/5을 더 배상해야 했다.
- 3. 제사 방식:** 희생제물의 기름부위는 모두 燔祭壇(번제 단)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聖幕(성막)뜰에서 먹을 수 있었다.

- 4. 영적 의미:** 늘 연약하고 실수 잘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賠償物(배상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救贖使役(구속사역)을 豫表(예표)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贖(속죄할 속): “돈이나 재물”을 뜻하는 貝(조개 패)에 “교역하다”의 뜻이 있는 賣(팔 매)를 결합시켜 ‘재물을 바치거나 자신을 노예로 팔아 죄 값을 속한다’는 의미의 글자가 만들어졌다.

★愆(허물 건. 어그러질 건): “넘치

다. 지나치다”라는 뜻의 衍(넓을 연)과 心(마음 심)을 합쳐 ‘넘치도록 지나치게 바라는 마음이 허물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祭(제사 제): ‘고기’를 상징하는 肉(月육달 월, 고기 육, 몸 육)과 ‘손’을 의미하는 又(또 우)와 ‘제사 그릇이나 神(신)’을 뜻하는 示(보일 시)를 결합하여 ‘고기를 손으로 장만하여 제기에 올리고 신에게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글함글



둘쨋날 첫 교구별 아침묵상



자연속에서의 하나님 묵상

3년만에 맞은 이번 수련회는
한마디로 만남의 시간이요
섬의 시간이었으며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공동체의
조그마한 재현이었다.
1차, 2차 수련회의 이모저모를
화보로 꾸몄다.



선택특강 (이단, 통일, 환경)



교구대항 체육대회 (1)



교구대항 체육대회 (2)



광야에서의 성찬식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

<평화, 그 아득한 희망을 걷다>



송강호 지음, IVP, 2012

전쟁의 위협과 유무형의 폭력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의 참 평화를 꿈꾸는 일은 많은 반
대와 핍박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
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눈을 닫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송강호 선교사님
의 신앙과 실천은 혹 우리가 그분
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
하더라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

인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송강호 선교사님은 독일 하이델
베르크대학에서 선교신학을 공부
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을 새롭게 깨닫고 소위 “에큐메니
칼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후 온갖 위험과 박해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일구어내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평화사역에 생의 전부를 던진 송
강호 선교사님의 흥미진진한 삶

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
십니까? **김정형** 목사

>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도움이 될 좋은 책들
을 선정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추천 도서
도 환영합니다. **함글함글**

평화의 도구 되기를 소망한 여러 행사들

주님의교회 창립 26주년 영상 기록

지난 6월 29일, 창립 26주년을 맞은 주님의교회에서는 다양한 창립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당일 3부 예배 시간에는 신임 항존직의 임직식과 임기를 마친 교역자와 장로의 퇴임식이 있었다. 7월 2일 7시 30분에는 창립 26주년 기념 음악회가 펼쳐졌으며, 6월 29일에는 성경필사 전시회가 열렸다. 한편, 1층 역사관은 홍보게시판으로 바뀌어 새로 단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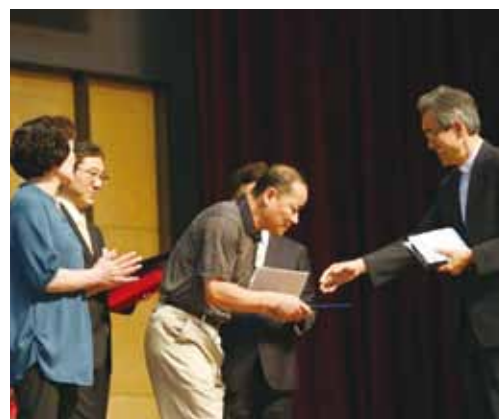
6월 29일 예배 시간에는 창립 26주년을 축하하는 조촐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박원호 담임목사와 교회 공동체의 대표들이 함께 케이크를 잘랐다.



이날 3부예배에서는 신임항존직의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장로 2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17명이 이날 참석한 많은 교인들의 축하와 격려 가운데 안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박혜성 목사가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고, 이영자, 김완중, 김재현 장로가 퇴임하여 감사장과 기념품이 증정되었다.



지난 15년간 교회를 위해 성실히 근무해 온 윤성태, 박귀례 집사에게는 15년 근속상이 수여되었다.



6월 29일에는 제3예배실에서 성경필사 전시회가 열렸다. 약 40여 명의 성도가 기도하며 한자 한자 기록한 성경필사본이 전시되었다



7월 2일 수요일예배 시간에는 살롬찬양대와 주오챔버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구노의 장엄예배"가 연주되었다.



한편 지난 2008년 12월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개관했던 주님의교회 역사 기록관이 홍보게시판으로 바뀌어 설치되었다.

첫번째 교회발전모임



교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들어진 통로인 교회발전모임의 첫번째 모임이 지난 7월 13일 주일 오후 4시, 엘림실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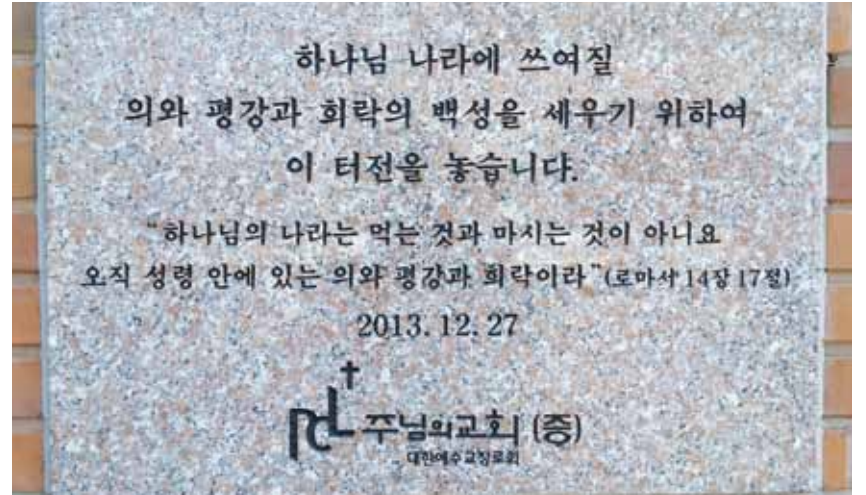
박원호 담임목사의 주재로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청년부, 제1~6여전도회의 대표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번째 모임에서, 박원호 목사는 창립 26주년을 맞은 주님의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의견을 다

양한 통로를 통해 수렴하고자 이 모임이 구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이 모임이 의결기구가 아니라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므로, 소속 기관의 의견을 가능한 많이 수렴해오길 바란다는 조원호 서기장로의 부언이 있었다. 이날은 첫 모임이었던 까닭에 모임의 주기와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 외의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되지 않았다.

함글함글

다목적교육공간 운영 약정



주님의교회 2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건립되어, 지난해 12월 27일 준공식을 갖고 정신학원에 기증된 다목적 교육공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지난 5월,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 사이에 맺어졌다. 약정에 따르면, 다목적교육공간의 1층,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의 문서고 등의 공간은 학교 전용이며, 5층 전체와 엘리베이터 앞 공간의 계단입구 및 문서고 앞 잔여 구역은 교회 전용으로 확정되었다. 이밖에 교회는 토요일과 주일에

한하여 다목적실 3, 4층 교실 및 홈베이스 구역의 사용을 양해하기로 하였고, 방학기간 중의 학교, 교회 전용구역의 사용은 양측의 사전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사용하기로 했다.

교회와 학교는 서로의 전용 구역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담당자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했다. 또한 서로의 전용 구역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인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함글함글**

호산나 한국 무용팀 나들이



월요일마다 지하유치부실에 모여 한국 무용 연습을 하는 호산나 무용팀이, 5월의 마지막 월요일 26일에 서울대공원으로 나들이를 가졌다. 2007년 이후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몸찬양의 연습을 가져왔다. 삼림욕장의 엔돌핀 넘치는 맑은 공기에 발걸음은 유난히 가볍게 걸으며 약간은 가파르게 느껴지는 산길을 걷고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김밥과 과일을 먹고 차를 마시며 정겨움이 묻어나는 교제를 나누었다. **최경희 집사**

늘푸른대학 2014년 1학기 종강



섬김과 나눔에서 섬기는 늘푸른대학 1학기가 7월 1일 종강하고 두달 동안 방학에 들어갔다. 방학 중 자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성경필사라는 작은 숙제가 주어졌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히브리서까지 성경 필사를 해서 제출하면 예쁘게 제본해서 드릴 예정이다.

종강하는 날 학생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늘푸른대학을 섬겨온 제3, 4, 5, 6 여선교회, 권사회, 주방봉사팀 스럽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늘푸른 대학은 9월 2일 (화)요일에 개강한다.

함글함글

사랑나무 여름 수련회



사랑나무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5-26일에 있었다. 첫째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께서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방문 했다. 둘째 날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체육활동과 물놀이를 했다. 아이들보다 더 신이 난 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나 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2014년 사랑나무 여름성경학교는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이 '참 평안'이라는 말씀으로 평안과 즐거움, 하나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8



사랑나무 예배 드리기 전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예배시간에 조용하겟노라, 하나님 말씀과 사랑 믿겟노라, 약속하는 작은 손, 착한 손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탁준한 안수집사(010-5389-2594)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2014년도 비전트립 순항중

2014년도 비전트립을 위한 후원행사가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다. 총 157명에 이르는 후원자 및 겨자씨가 총 11,632,000원의 후원금과 많은 물품을 기증해 주었다. 이는 2014년에 비하여 약 35% 증가한 규모이다.

한편, 2014년도 비전트립은 원래 계획했던 일정이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다. 케냐의 경우 현지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고, 그후 여행경보가 2단계 여행자

제에서 3단계 여행제한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교인의 안전을 위하여 비전트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케냐에 대한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안전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비전트립 참여자는 6월 15일과 22일에 있었던 교육 과정을 통해, 선교여행의 방향, 건강관리 및 안전수칙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비전트립팀은 7월 6일 교회의 파송식을 거쳐 일정에 따라 파송되고 있다.

이병직 안수집사/해외선교분과 비전트립팀장

국가	일자	인원	인원
키르기스스탄	7/8~7/15	김정형 목사 외 10인	여름성경학교, 청년부 공동 연합캠프, 수공예사역
베트남	7/30~8/4	조정현 목사 외 21인	의료사역, 집짓기사역, 문화공연
코스타리카	8/2~8/11	유기영 목사 외 7인	성경학교, 전도, 의료품 전달

해외선교 소식 | 베트남

최화평 선교사 표창장 받아



베트남 빈롱성 응웬 반 집 주석과 최화평 선교사

지난 2014년 6월 25일, 베트남 빈롱성 응웬 반 집 주석은 주님의교회가 파송한 최화평 선교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표창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빈롱성을 중심으로 사회봉사와 자선활동에 기여한 공을 기리는 뜻으로 수여된 것이다.

김용규 안수집사

제3차 퍼스펙티브선교 교육

2014년 제3차 퍼스펙티브 선교 교육이 9월 4일부터 시작된다. “퍼스펙티브”는 ‘조망한다’는 뜻으로,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조망하여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선교 교육이다. 미국의 선교 신학자 랄프 윈터 박사에 의해 만들어진 후 세계 곳곳에서 퍼스펙티브스 과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도

입되어 전국적으로 300여 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해외선교분과 주관으로 2012년 1차, 2013년의 2차에 이어 올해 제3차 교육이 진행된다.

그 동안 선교이야기, 선교학교, 선교대학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선교 교육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퍼스펙티브스 선교 교육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그 어떤 선교 교육보다 심도있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총 12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들의 강의와 튜터의 강의 요약 및 정리, 다양한 조별 활동이 포함된다. 12주라는 다소 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수료했던 분들 모두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해외선교분과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하반기에 퍼스펙티브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4일부터 시작하는 올해의 제3차

교육은 12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10시, 3층 밀알실에서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8월 한달 동안 교회 1층 로비에서 수강신청을 받는다. ‘12단계 성경공부’, ‘예수친구사역’의 마지막은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것, 퍼스펙티브 선교 교육은 바로 그 ‘실천’을 배우는 과정일 터이다. 문의 010-2287-9258.

손영익 안수집사/해외선교분과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4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설립

감리회 남, 여 학교가 1885년, 1886년 각각 시작되고 있는 반면에 장로회 학교는 언더우드가 자신의 집 건너편에서 언더우드 학당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선교본부로부터 인적, 재정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장로회의 유일한 여선교사로 제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애니 엘러스는 여학교를 시작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미북장로회 선교본부는 아직 조선에 여학교를 시작



서대문 성벽 안쪽에 보이는 프랑스 공사관, 이 근처에 정동여학당이 세워졌다.

할 여력이 없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2년 정도만 사역을 하다가 여의사가 오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있었다. 그러나 여의사가 파송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육영공원 의사로 파송되어 있던 벙커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 조선에 영원히 남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고종은 결혼하는 그녀에게 결혼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고, 그녀는

학교를 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종은 그녀가 원하는 집을 마련해주었다. 지금의 정동길 22(구 정동 28번지), 정동의 창덕여자중학교가 있는 자리이다.

결혼하기 전, 1887년 6월 그녀는 고아 한 학생을 데리고 이곳에서 학교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는 25살의 여선교사 개인의 노력과 기도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감

천사의 합창,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2014년 여름 순회연주, '우리들의 천국여행'을 소개합니다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은 청소년 정서 함양과 음악을 통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 1969년 3월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0명으로 창단되어 금년으로 46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래선교단은 정서가 메마르고 사랑과 믿음이 부족한 시대에 음악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고, 메말라가는 현실 속에서 노래를 통해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창설 당시부터 방송국, 고등학교, 군부대, 교도소, 지역 교회 등 여러 분야로 연주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8명으로 구성된 노래선교단은 7월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전주, 인천, 천안, 공주, 김포 강화, 동두천, 이천 등의 여러 기관과 학교, 군부대와 병원 등을 순회 방문하며 연주활동을 진행했습니다.



7월 17일 공주교도소

‘천국여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노래선교단에서는 지방순회를 ‘천국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 노래선교단은 올해로 46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교내 동아리로, 노래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널리 알리는 단체입니다. 노래선교단의 단원들은 모두 2학년 학생입니다. 1학년 때 미리 오디션을 통해 단원들을 선발하고,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2학년 때 부터입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한 시간 일찍 등교하고, 한 시간 늦게 하교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3월부터 꾸준히 노력합니다. 지방순회를 다니기 전 서울 내의 교회에 찾아가 연주를 하는 서울순회로 미리 실전경험을 쌓은 다음,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지방순회를 떠납니다. 공주교도소 공연은 ‘천국여행’이 무엇인지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유경연 2학년**

순회공연 3일차인 7월 18일에 저희가 방문한 곳은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제2사단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해병대가 매우 엄숙하고 단호한 곳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숙소인 청룡회관에 걸려있는 달력에 실려 있던 훈련 사진이나 해병대의 군기를 보여주는 빨간 글씨는 저희로 하여금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공연시작 후 저희는 앞서 했던 걱정들이 전부 부질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병대 제2사단은 저희가 공연했던 그 어떠한 곳보다 뜨겁게 저희를 환영해주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라는 곡은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내민 손을 잡으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 모두가 진심을 담아 행복하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정슬현 2학년**



7월 18일 해병 제 2사단



7월 19일 종합보훈병원

보훈병원에서 동요 ‘반달’을 부를 때였습니다. ‘반달’은 관객과 함께하는 손동작이 있었습니다. 무대 밑으로 내려가 통로 사이사이에 서서 앞에 계신 분들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셨던 한 분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힘겹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동작을 하려했지만 그분은 손을 심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분은 의안을 하시고 투병으로 인한 검은 피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우리는 ‘반달’이 이렇게 슬픈 곡인지 몰랐다. 환자분의 손이 정말 따뜻했다. ‘나는 항상 좋은 것만 보고 누렸는데 이제는 시야를 넓고 깊게 보도록 해야겠다고 느꼈다.’ 등의 느낀 점들을 나눴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김성윤 2학년**

한나그린힐은 법인 요양원으로 총 100명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 위문연주회에는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과 관계자분들을 합하여 70명 정도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줄을 맞추어 입장할 때 “아 참 곱다”, “할렐루야”라고 외치시는 어르신들의 고운 모습을 보며 저희도 모르게 힘이 났습니다. 매일 밤에 열리는 일일평가회 시간에는 친구들과 오늘 있었던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할머니께서 참 곱게 잘꿨다고 칭찬 해 주신 후에 친구들의 눈빛과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노래로서 그분들을 위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위안과 감동을 받고 온 연주회였습니다. **홍아리 2학년**



7월 19일 한나그린힐



7월 21일 대광고등학교

지방 순회의 마지막 공연지인 대광고등학교에 도착하게 되어 모두들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우리들은 ‘왕 되신 우리 주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오 준비가 되었나’ 등의 곡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찬양의 노래와 가벼운 율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선집중과 청중과의 소통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다른 아닌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동요 여러 곡을 연속으로 결합시켜 재미있는 율동과 함께 부른 노래인데, 연주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의 관객들로 변해지는 것을 보 수 있었습니다. 영화 ‘국가대표’ 음악인 ‘버터플라이’를 부를 때에는 작은 소리로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에 오히려 우리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송승희 2학년**

코마인터뷰 | 정신학원 노래선교단 지휘 박영주 안수집사

마음으로 부르는 '감사의 노래'



지난 7월,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38명의 단원을 이끌고 지방의 교도소, 군부대, 병원과 학교를 순

회하며 음악선교를 펼친 박영주 안수집사를 만났다. 올해로 벌써 서른 번째이니 짧지 않은 세월이다. 그중 가장 뜻 깊은 기억은, 제28회 때였다. 당시 YMCA건물에 있던 주님의교회에서의 연주가 오늘날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이 동역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단원은 1학년 때 선발하여 2학년 때 한 학급으로 편성하는데,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고맙다고.

연주시간이 길어 교회 예배때는 초청이 어렵지만, 박영주 집사가 호산나 찬양대도 맡고 있기 때문에, 호산나 찬양대가 기념음악회를 할 때 협연하는 노래선교단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함글함글

교회 단신

안수집사회, 임직자 환영과 불우이웃 돕기



안수집사회에서는 새로 임직한 장로 및 안수집사 환영회와 더불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가졌다. 지난 7월 6일 수서복지관을 방문,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선봉기 33대를 전달했다. 금년 들어 사회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으므로, 환영식 자체를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또한 안수집사회 자체의 행사도 줄여서 연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유기영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임직자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에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자,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 하루 하루를 기도로 세워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원했다.

함글함글

알림

▶ 당회 보고

7월 당회 결의사항

1. 예산을 추경하기로 하다: 다목적 교육관 5층 음향공사, 청년부, 소그룹 위원회
2. 권혁준, 강현규 전도사 목사 안수 청원하기로 하다
3. 규정 TF팀 구성과 사역방향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하기로 하다 (위원장-담임목사, 부팀장-박대길 장로)
4. 신임장로 보직
최성준 장로 - 2030분과 위원회 동현수 장로와 함께 사역, 사무국운영위원회
배익환 장로 - 미디어분과 위원회 김학원 장로와 함께 사역, 선거관리위원회

▶ 자연적 교회성장 진단 설문

우리교회의 건강진단을 위한 NCD(자연적 교회성장) 진단 설문은 교인 약 200인을 대상으로 6월 22일 주일에 실시되었다.

▶ 여름 무더위 국수 봉사 휴무

여름 휴가기간 동안, 무더위를 피해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국수 봉사가 휴무에 들어간다. 8월 24일 하반기 국수 봉사가 시작된다.

▶ 남천 경로당 무료 급식 휴무

그동안 매주 지원해왔던 남천경로당 무료 급식도 여름 무더위 기간 동안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3주동안 휴무를 갖는다.

주방부장 이취임식

지난 6월 29일 새벽, 전반기 동안 주방을 이끈 김진숙 권사와, 후반기에 주방을 섬길 이은우 권사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주일마다 평균 3,500 그릇의 국수를 마련하는 힘든 주방을 감당해온 주방식구들과 함께 케이크와 간식을 나누면서 주방 열쇠를 인수인계했다. 6개월 동안 늘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힘든 사역을 감당한 김진숙 권사는 후반기에도 교우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했다.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да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여름방학 기간(7월 21일 ~ 8월 10일) 중에는 상담이 없으며, 8월 11일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